

‘학개 2 장 2’

➤ 들어가기

16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과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비교하면서 실망할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3 번의 메시지를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첫째로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둘째 성전 건축을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축복을 더 하실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스룹바벨을 택하셨고 그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 두 번째 말씀 :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0-19 절)

1) 다리오 왕 2 년 9 월 24 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10 절)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지 2 달만에 다시 말씀하심!

2)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2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11-13 절)

①. 질문 1 -> 12 절

‘...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 제사장들의 답변은? => ‘아니니라 하는지라!’
- 우선 이 질문의 레위기 6 장 24-30 절에 있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근거로 물어보신 것!
 - 참고: 레 6:27,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 이 율법의 원 의미는 속죄제의 제물과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
 -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속죄제의 제물인 그 거룩한 고기를 쓴 옷은 거룩한 것!!
-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 그 거룩한 고기를 쓴 옷이 다른 떡/국/포도주...등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되겠나?였고, 제사장들의 답은 아니다! 였다.
- 그럼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바로 의식적으로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신 것!
 -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 행위로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②. 질문 2 -> 13 절

‘...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 제사장들의 답변은? => **‘부정하리라 하더라!’**
- 우선 이 질문은 레위기 11 장과 22 장의 정결 율법을 근거로 물어보신 것
 - 레 11:28 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근거로 이미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진 것인지? 또 묻게 하셨고,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한 것!
- 그럼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첫 질문과는 반대로 모든 일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범죄하여 부정해졌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정할 것이 된다는 것!
 - 곧 첫 질문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

3) 이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요, 부정할 상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4 절)

■ 14 절 주목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 곧 하나님은 율법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성전을 제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이 드린 희생제물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 믿고, 자신들의 삶만 챙기면 살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책망하신 것!
-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

4)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건축이 중단된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15-19 절)

■ 15 절 주목,

‘... ,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 여기서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란 공사가 시작되었다 멈춘 때를 의미!

■ 그럼 성전건축이 중단된 때부터 당시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16-19a)

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50%밖에 수확하지 못했음! (16 절)

- 20 석 밭에서 10 석만 수확하고, 50 동이를 얻는 포도즙 틀에서 20 동이만 수확할 뿐!

②. 이같은 흉년의 연속으로 창고의 곡식은 이미 다 바닥이 난 상황임!! (19 절 a)
 -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③. 그런데 이런 흉년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징계하신 것! (17 절)
 -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깎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 곧 하나님의 말씀(성전건축)에 불순종하고, 그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행한 14년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무한 삶의 연속이요, 하나님께 징계만 받았던 삶!
-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고,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추며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

▪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 19 절 b 주목! -> ‘...,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심!
- 특별히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 (시 37:28, 145:20, 149:9, etc.)

2. 세 번째 말씀 : ‘스룹바벨을 택하셨고, 영광되게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20-23 절)

1)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20-21 절 a)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 참고로 본문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로 번역 => 70 인역=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로 번역!!
 - 곧 스룹바벨은 단순히 유다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아니라, 유다 지파됨을 강조!
 -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할 ‘여호와의 종’ + 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의 후손됨을 강조한 것!!
 -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20-23 절의 말씀은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언하신 것으로 해석!

2) 그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①. 21 절 b, ‘…,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 이미 6-7 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심!!
 =>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의 사건으로 해석했음!!

②. 22 절 : 열국을 멸하실 것!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 참고로 ‘여러 왕국들의 보좌’란 말에서 ‘보좌’는 단수로 기록됨!
 - 곧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멸하실 심판의 날을 선포하신 것!

③. 23 절: 하나님께서 스킷바벨을 택하셨고, 그를 높이실 것!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킷바벨아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a. 우선 3 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강조하심!!
 -> 언약에 근거한 확고한 결단, 불변의 약속!!

b. 스킷바벨은 나의 종!! => 곧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은 자!
 - 인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왕의 인장으로 인을 쳐서 확정했다는 것!
 - 곧 아무리 세상이 스킷바벨을 멸시하고 없신여김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자 곧 높이신 자요, 하나님께서 멸망 시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되심을 예언하신 것!

✓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가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시 살리시어 온 세상에 높임을 받는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

✓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세상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 되자!!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새로 결단한 것 무엇인가요?

❖ 중보기도 나눔